

# 엔터투어리즘

## 비중 확대 (유지)

### [Analyst]

성준원 ☎ 02) 3772-1538  
 책임연구 ✉ jvsung79@shinhan.com

공영규 ☎ 02) 3772-1527  
 연구원 ✉ jxlove1983@shinhan.com

## 9월 출입국자 동향: 월별 사상 최대

### 9월 내국인 출국자 월별 사상 최대. 1,059,709명(+4.6% YoY) 기록

9월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는 1,059,709명(+4.6% YoY)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9월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출국자가 많았다. 금년에도 9월 마지막주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출국자 증가세는 이어졌다. 다만, 10월 첫째주에도 추석 연휴 출국자가 많았기 때문에 9월 출국자 증가는 전반적인 여행 수요의 증가 덕분으로 보인다. 2012년 연간 출국자는 1,357만명(+6.9% YoY)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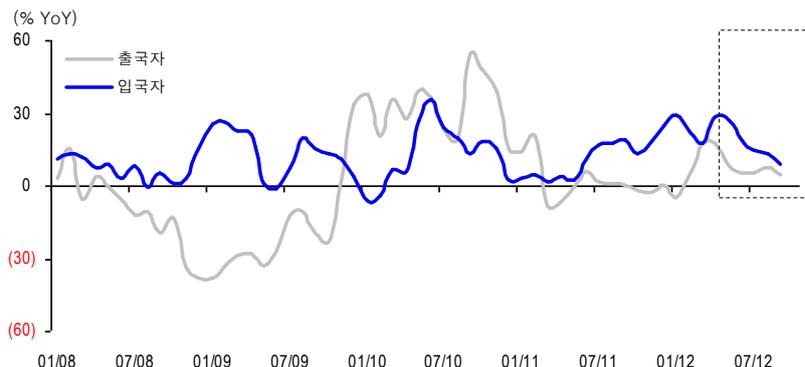
### 9월 외국인 입국자 월별 사상 최대. 986,961명(+8.8% YoY) 기록

9월 외국인 입국자는 사상 최대인 986,961명(+8.8% YoY)을 기록했다. 다만, 국적별로 입국자의 증감률은 차별화가 진행되었다. 중국인은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일본인은 2011년 6월 이후 지속되어 오던 상승세가 끝나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인 입국자는 283,402명(+22.4% YoY)으로 7월과 8월에 이어 다시 월별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일본인은 308,882명(-3.8% YoY)이 입국했다. 2012년 외국인 입국자 예상치는 1,126만명(+15.0% YoY)으로 사상 최대 입국자 전망을 유지한다.

### 수혜주: 하나투어, 모두투어,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GKL

출국자와 중국인 입국자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일본인 입국자는 감소 또는 정체 국면이 시작될 전망이다. 단순히 매출액 비중으로 본 수혜주는 하나투어(출국자 95%), 모두투어(출국자 95%), 호텔신라(출국자 45%, 중국인 28%, 일본인 24%), 파라다이스(중국인 65%, 일본인 20%), GKL(일본인 35%, 중국인 33%)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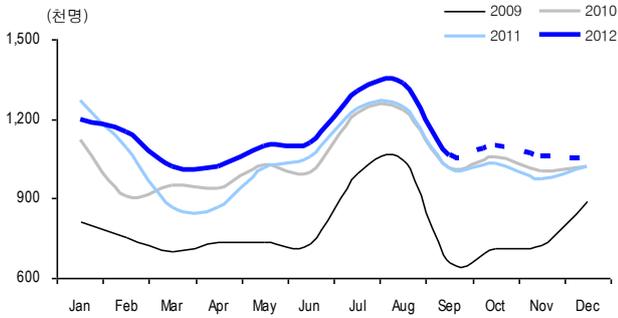
### 출국자 및 입국자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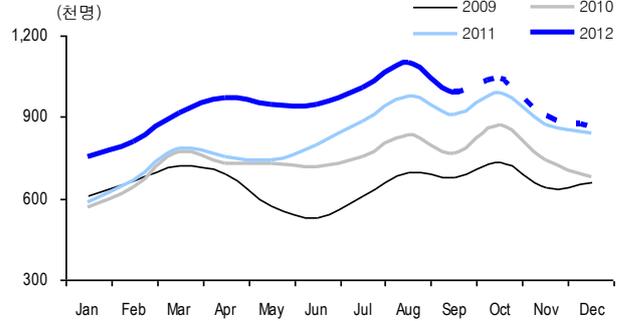
## 출입국자 관련 주요 지표

출국자 추이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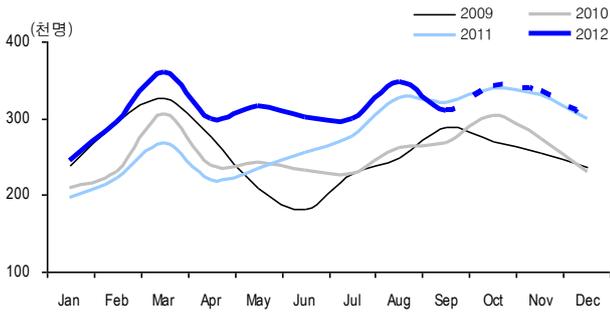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입국자 추이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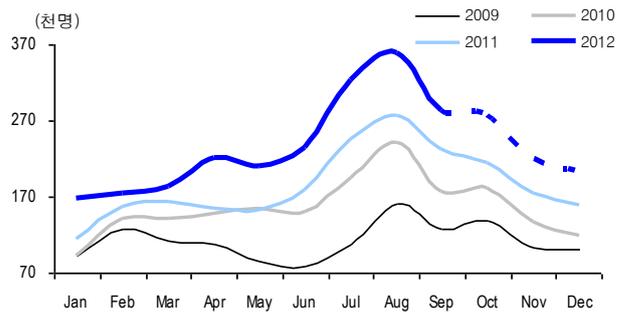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일본인 입국자 추이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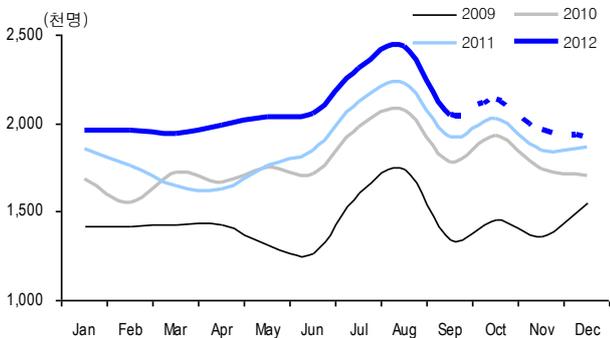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중국인 입국자 추이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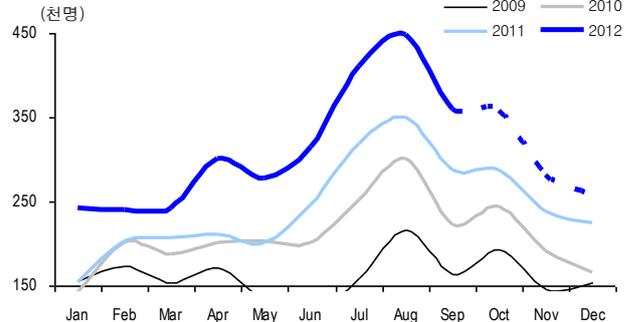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출국자+입국자 합산 추이 (월별)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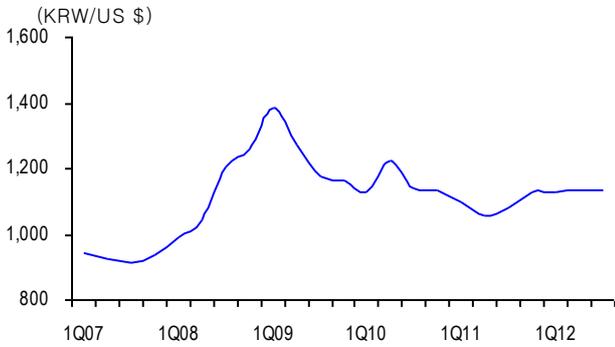
중화권(중국+대만+홍콩) 입국자 추이 (월별)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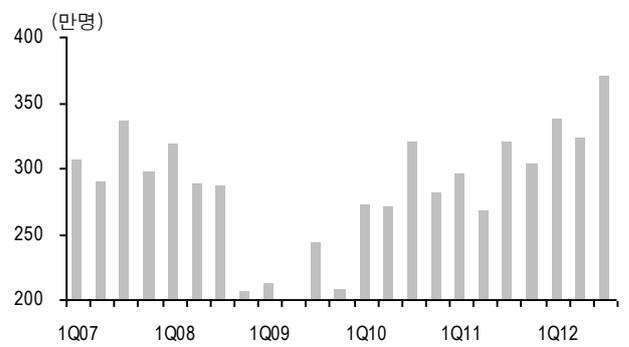
## 환율 추이

원/달러 환율 추이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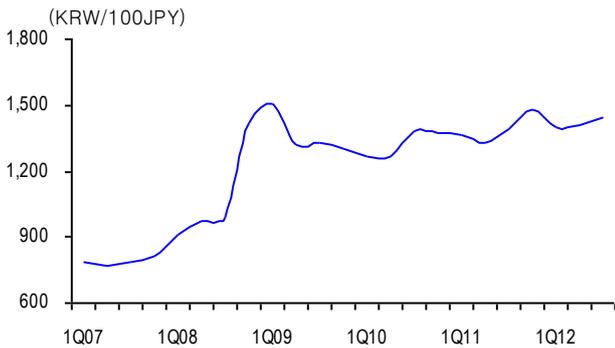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 Datastream, 신한금융투자

출국자 추이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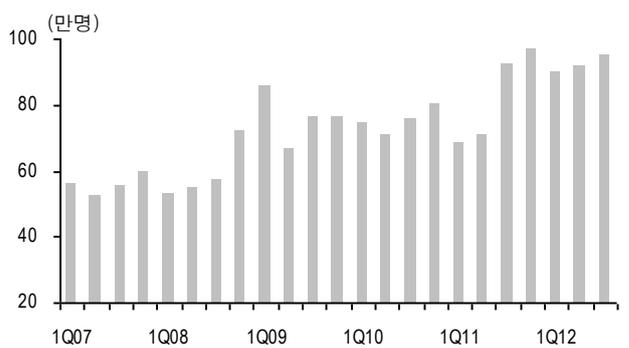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원/100엔 환율 추이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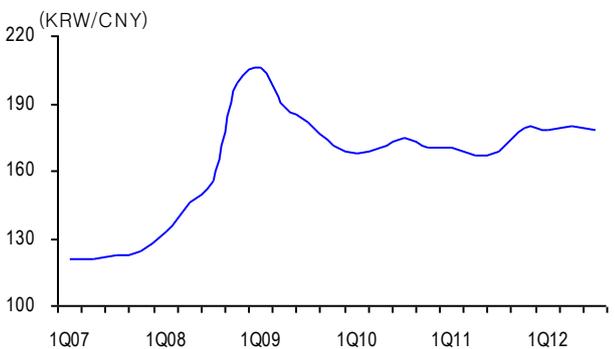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 Datastream, 신한금융투자

일본인 입국자 추이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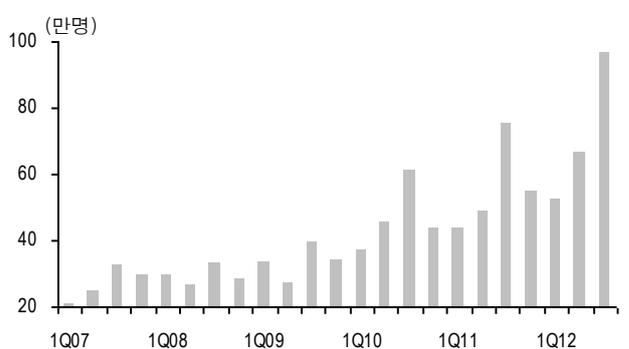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원/위안 환율 추이 (분기)



자료: Thomson Reuter Datastream, 신한금융투자

중국인 입국자 추이 (분기)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 9월 출국자: 1,059,709명(+4.6% YoY) 기록

- 9월 출국자는 1,059,709명(+4.6% YoY) 기록
- 하나투어 전체 송출객수: 170,750명(+8.4% YoY, M/S 17.9%)
- 모두투어 전체 송출객수: 95,451명(+4.1% YoY, M/S 10.0%)

9월 전체 출국자:  
1,059,709명(+4.6% YoY)

9월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는 1,059,709명(+4.6% YoY)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9월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출국자가 많았다. 금년에도 9월 마지막주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출국자 증가세는 이어졌다. 다만, 10월 첫째주에도 추석 연휴 출국자가 많았기 때문에 9월 출국자 증가는 전반적인 여행 수요의 증가 덕분으로 보인다. 2012년 연간 출국자는 1,357만명(+6.9% YoY)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9월 승무원제외 출국자:  
952,772명(+3.7% YoY)

하나투어의 9월 전체 송출객수는 170,750명(+8.4% YoY)으로 17.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패키지 송출객수는 115,283명(+8.0% YoY)이고, 시장점유율은 12.1% 수준이다.

모두투어의 9월 전체 송출객수는 95,451명(+4.1% YoY)으로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패키지 송출객수는 65,415명(+4.6% YoY)이고, 시장점유율은 6.9% 수준이다.

월별 출국자 추이 및 하나투어/모두투어의 송출객수

(명)	출국자				하나투어				모두투어				하나투어 M/S (%)		모두투어 M/S (%)	
	전체 (% YoY)	승무원제외 (% YoY)	전체 (% YoY)	패키지 (% YoY)	전체 (% YoY)	패키지 (% YoY)	전체 (% YoY)	패키지 (% YoY)	전체	패키지	전체	패키지	전체	패키지		
Sep.10	1,013,123	53.9	923,116	60.1	144,964	128.8	106,669	244.3	79,207	124.6	55,014	250.2	15.7	11.6	8.6	6.0
Oct.10	1,055,581	47.7	963,341	52.6	155,420	104.3	118,367	161.5	86,284	115.9	60,878	206.6	16.1	12.3	9.0	6.3
Nov.10	1,004,902	39.2	914,754	42.9	150,360	76.6	112,792	105.4	85,541	77.9	60,577	123.0	16.4	12.3	9.4	6.6
Dec.10	1,021,428	14.9	928,829	15.8	149,584	22.5	108,340	27.2	89,135	27.3	61,164	34.9	16.1	11.7	9.6	6.6
Jan.11	1,268,007	13.4	1,172,536	13.8	198,742	23.3	150,470	26.1	120,389	28.4	87,479	33.0	16.9	12.8	10.3	7.5
Feb.11	1,091,628	20.2	1,005,722	21.5	172,382	30.7	134,601	35.9	101,242	24.8	75,982	28.3	17.1	13.4	10.1	7.6
Mar.11	868,694	(8.6)	777,259	(10.0)	125,934	(1.4)	87,133	(5.1)	73,308	(7.6)	48,742	(11.1)	16.2	11.2	9.4	6.3
Apr.11	867,487	(7.3)	780,352	(8.3)	124,081	(3.0)	86,155	(9.1)	75,635	(2.0)	51,547	(4.8)	15.9	11.0	9.7	6.6
May.11	1,014,409	(0.9)	921,976	(1.1)	150,010	3.4	105,908	(2.3)	86,940	4.6	59,159	(0.0)	16.3	11.5	9.4	6.4
Jun.11	1,053,658	5.6	962,049	5.6	163,041	16.1	112,755	12.6	95,009	19.5	63,475	17.0	16.9	11.7	9.9	6.6
Jul.11	1,241,629	1.5	1,142,357	0.9	194,678	10.7	134,426	4.9	115,515	12.5	77,391	6.9	17.0	11.8	10.1	6.8
Aug.11	1,247,222	0.9	1,132,991	(0.6)	198,158	10.5	139,836	4.6	121,674	18.8	86,554	16.0	17.5	12.3	10.7	7.6
Sep.11	1,013,507	0.0	918,341	(0.5)	157,549	8.7	106,755	0.1	91,725	15.8	62,540	13.7	17.2	11.6	10.0	6.8
Oct.11	1,032,589	(2.2)	932,759	(3.2)	167,868	8.0	118,817	0.4	103,521	20.0	71,751	17.9	18.0	12.7	11.1	7.7
Nov.11	974,255	(3.0)	879,791	(3.8)	156,502	4.1	110,472	(2.1)	94,503	10.5	63,775	5.3	17.8	12.6	10.7	7.2
Dec.11	1,020,648	(0.1)	921,723	(0.8)	156,664	4.7	105,235	(2.9)	96,977	8.8	65,664	7.4	17.0	11.4	10.5	7.1
Jan.12	1,200,782	(5.3)	1,099,531	(6.2)	196,850	(1.0)	141,947	(5.7)	120,804	0.3	87,388	(0.1)	17.9	12.9	11.0	7.9
Feb.12	1,150,334	5.4	1,054,817	4.9	196,215	13.8	142,515	5.9	122,052	20.6	88,498	16.5	18.6	13.5	11.6	8.4
Mar.12	1,018,952	17.3	919,070	18.2	158,640	26.0	109,038	25.1	100,401	37.0	68,984	41.5	17.3	11.9	10.9	7.5
Apr.12	1,018,645	17.4	919,446	17.8	166,166	33.9	116,417	35.1	102,502	35.5	72,116	39.9	18.1	12.7	11.1	7.8
May.12	1,096,950	8.1	990,943	7.5	179,682	19.8	125,269	18.3	105,732	21.6	72,817	23.1	18.1	12.6	10.7	7.3
Jun.12	1,109,273	5.3	1,006,344	4.6	185,619	13.8	127,783	13.3	106,596	12.2	70,253	10.7	18.4	12.7	10.6	7.0
Jul.12	1,305,418	5.1	1,193,939	4.5	214,580	10.2	146,923	9.3	123,901	7.3	82,600	6.7	18.0	12.3	10.4	6.9
Aug.12	1,334,651	7.0	1,220,217	7.7	226,177	14.1	158,843	13.6	134,719	10.7	96,619	11.6	18.5	13.0	11.0	7.9
Sep.12	1,059,709	4.6	952,772	3.7	170,750	8.4	115,283	8.0	95,451	4.1	65,415	4.6	17.9	12.1	10.0	6.9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주: 하나투어, 모두투어 시장점유율 계산시 승무원이 제외된 출국자를 기준으로 함

## 9월 입국자: 986,961명(+8.8% YoY) 기록

- 9월 전체 입국자: 986,961명(+8.8% YoY) 기록
- 중국인 입국자: 283,402명(+22.4% YoY), 월별 사상 최대
- 일본인 입국자: 308,882명(-3.8% YoY), 15개월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

### 9월 입국자

중국인: 283,402명(+22.4% YoY)

일본인: 308,882명(-3.8% YoY)

9월 외국인 입국자는 사상 최대인 986,961명(+8.8% YoY)을 기록했다. 다만, 국적별로 입국자의 증감률은 차별화가 진행되었다. 중국인은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일본인은 2011년 6월 이후 지속되어 오던 상승세가 끝나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인 입국자는 283,402명(+22.4% YoY)으로 7월과 8월에 이어 다시 월별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일본인은 308,882명(-3.8% YoY)이 입국했다. 2012년 외국인 입국자 예상치는 1,126만명(+15.0% YoY)으로 사상 최대 입국자 전망을 유지한다.

중국인 입국자는 283,402명(+22.4% YoY)을 기록했다. 월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9월까지의 중국인 누적 입국자는 2,156,922명(+29.0% YoY)이다. 9월과 10월에는 중추절과 국경일이 연결되기 때문에 10월에도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012년 중국인 입국자 전망치 285만명(+28.5% YoY)을 유지한다.

일본인 입국자는 308,882명(-3.8% YoY)을 기록했다. +3%대의 증가를 예상했으나 High-Base(기고효과) 때문에 역성장했다. 환율 문제는 아니다. 영토분쟁(독도) 영향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 2012년 일본인 입국자는 사상 최대인 375만명(+14.0% YoY) 수준으로 예상된다.

### 월별 외국인 입국자 추이

날짜	(명)			(% YoY)		
	전체입국자	일본인	중국인	전체입국자	일본인	중국인
Sep.10	764,693	267,886	176,196	12.7	(7.3)	39.0
Oct.10	872,550	302,570	181,428	18.3	11.7	30.6
Nov.10	738,271	274,889	136,152	14.9	7.6	33.1
Dec.10	677,366	229,806	119,061	2.4	(2.8)	17.4
Jan.11	586,152	196,301	113,927	2.9	(6.2)	24.8
Feb.11	667,089	221,318	157,019	4.4	(3.9)	11.7
Mar.11	781,286	268,355	163,261	1.5	(12.3)	15.4
Apr.11	754,458	220,142	153,875	3.3	(7.9)	4.2
May.11	743,464	234,626	152,347	1.9	(2.9)	(1.1)
Jun.11	795,850	254,872	179,508	10.8	10.0	19.6
Jul.11	881,809	275,317	244,573	16.8	21.0	25.3
Aug.11	977,296	325,927	276,299	17.2	24.3	14.2
Sep.11	906,813	321,231	231,462	18.6	19.9	31.4
Oct.11	988,320	340,172	214,681	13.3	12.4	18.3
Nov.11	869,876	331,721	174,164	17.8	20.7	27.9
Dec.11	842,383	299,069	159,080	24.4	30.1	33.6
Jan.12	753,793	244,370	167,022	28.6	24.5	46.6
Feb.12	810,967	294,317	173,790	21.6	33.0	10.7
Mar.12	916,357	360,719	183,691	17.3	34.4	12.5
Apr.12	967,593	298,656	222,114	28.3	35.7	44.3
May.12	942,602	316,598	210,439	26.8	34.9	38.1
Jun.12	946,333	302,383	234,482	18.9	18.6	30.6
Jul.12	1,009,225	299,477	322,917	14.4	8.8	32.0
Aug.12	1,103,311	346,950	359,065	12.9	6.5	30.0
Sep.12	986,961	308,882	283,402	8.8	(3.8)	22.4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 수혜주: 하나투어, 모두투어,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GKL

- 2012년 출국자 1,357만명(+6.9% YoY), 입국자 1,126만명(+15.0% YoY) 예상
- 수혜주: 하나투어, 모두투어,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GKL

### 2012년 전망

출국자 1,357만명(+6.9% YoY)  
 입국자 1,126만명(+15.0% YoY)

2012년 예상되는 출국자는 1,357만명(+6.9% YoY)이고, 입국자는 1,126만명(+15.0% YoY)이다. 중국인 입국자는 285만명(+28.5% YoY), 일본인 입국자는 375만명(+14.0% YoY) 수준으로 전망한다.

출국자와 중국인 입국자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일본인 입국자는 감소 또는 정체 국면이 시작될 전망이다. 단순히 매출액 비중으로 본 수혜주는 하나투어(출국자 95%), 모두투어(출국자 95%), 호텔신라(출국자 45%, 중국인 28%, 일본인 24%), 파라다이스(중국인 65%, 일본인 20%), GKL(일본인 35%, 중국인 33%)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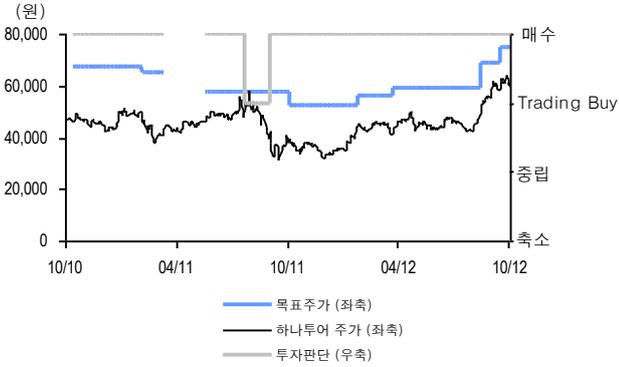
4분기 출국자 예약률이 높은 상황이라서 사상 최대 출국자는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인 입국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면 중국인 비중이 높은 파라다이스가 GKL 보다는 더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호텔신라는 출국자와 입국자의 비중이 적절하게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본인 입국자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서울지역 면세점들의 중국인 고객에 대한 마케팅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출입국자 추이 (연도별)										
(천명)	05	06	07	08	09	10	11	12F	13F	14F
출입국자 합계	16,103	17,765	19,773	18,887	17,312	21,286	22,488	24,834	26,404	27,950
출국자 (승무원포함)	10,080	11,610	13,325	11,996	9,494	12,488	12,694	13,572	14,298	14,973
입국자	6,023	6,155	6,448	6,891	7,818	8,798	9,794	11,262	12,106	12,978
일본	2,440	2,339	2,236	2,378	3,053	3,023	3,289	3,750	3,627	3,533
중국	710	897	1,069	1,168	1,342	1,875	2,220	2,854	3,467	4,126
대만	351	338	335	320	381	406	428	535	647	726
홍콩	166	143	140	160	216	229	280	331	394	458
동남아	822	891	967	1,066	1,082	1,305	1,416	1,519	1,617	1,701
기타	1,533	1,547	1,701	1,798	1,743	1,959	2,161	2,273	2,355	2,435
(% YoY 증감률)										
출입국자 합계	9.8	10.3	11.3	(4.5)	(8.3)	23.0	5.6	10.4	6.3	5.9
출국자 (승무원포함)	14.2	15.2	14.8	(10.0)	(20.9)	31.5	1.6	6.9	5.4	4.7
입국자	3.2	2.2	4.8	6.9	13.4	12.5	11.3	15.0	7.5	7.2
일본	(0.1)	(4.1)	(4.4)	6.4	28.4	(1.0)	8.8	14.0	(3.3)	(2.6)
중국	13.2	26.3	19.2	9.3	14.9	39.7	18.4	28.5	21.5	19.0
대만	15.3	(3.8)	(0.9)	(4.5)	18.9	6.8	5.3	24.9	21.0	12.2
홍콩	7.2	(14.1)	(1.9)	14.4	34.6	5.9	22.5	18.3	18.9	16.2
동남아	5.2	8.4	8.5	10.3	1.6	20.6	8.5	7.3	6.4	5.2
기타	0.7	0.9	10.0	5.7	(3.1)	12.4	10.3	5.2	3.6	3.4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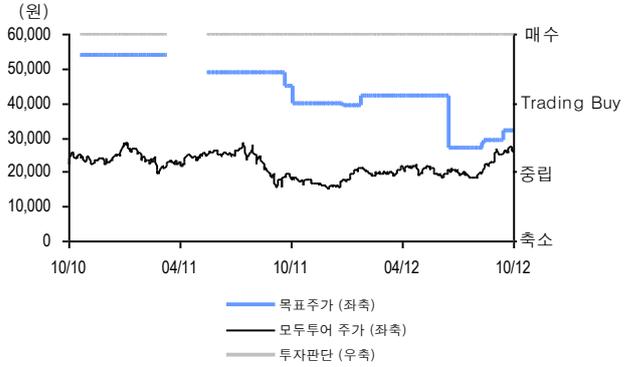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하나투어 (039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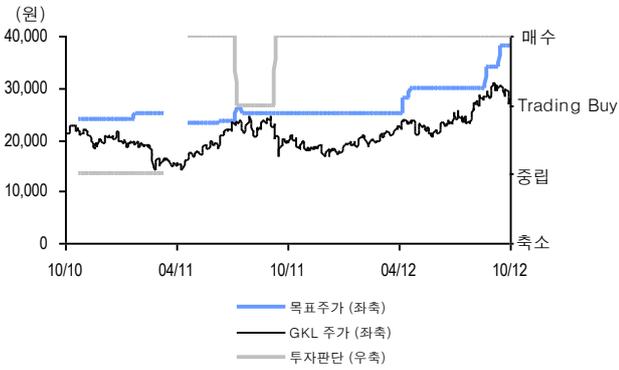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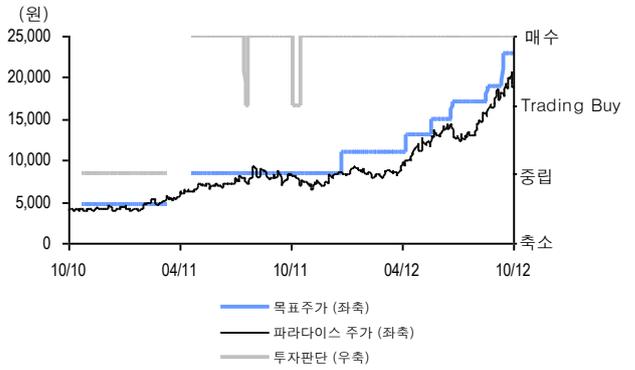
모두투어 (080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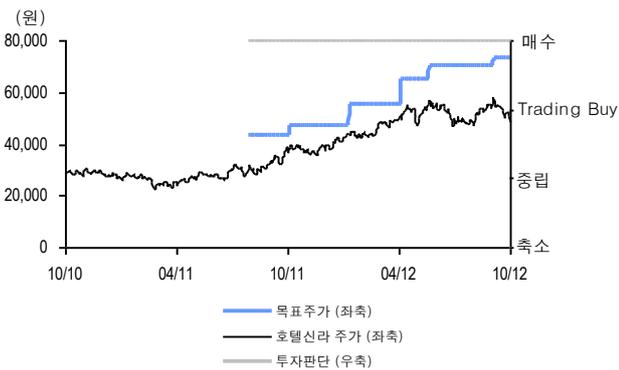
GKL (114090)



파라다이스 (034230)



호텔신라 (008770)





**신한금융투자 영업망**

<b>서울지역</b>									
강남	02) 538-0707	남대문	02) 757-0707	마포	02) 718-0900	PB서초영업소	02) 3482-1221	영업부	02) 3772-1200
PB강남영업소	02) 3011-5500	태평로골드PB센터	02) 757-1192	명동	02) 752-6655	서교동	02) 335-6600	서여의도영업소	02) 784-0977-9
강남중앙	02) 6354-5300	노원역	02) 937-0707	명품PB센터강남	02) 559-3399	송파	02) 449-0808	PB여의도영업소	02) 6337-3300
PB스타타워영업소	02) 2112-4500	논현	02) 518-2222	목동	02) 2653-0844	신논현역	02) 875-1851	올림픽	02) 448-0707
관악	02) 887-0809	답십리	02) 2217-2114	목동중앙	02) 2649-0101	신당	02) 2254-4090	잠실롯데캐슬	02) 2143-0800
광교	02) 739-7155	성수동영업소	02) 466-4228	반포	02) 533-1851	압구정	02) 511-0005	잠실신천역	02) 423-6868
광화문	02) 732-0770	대치센트레빌	02) 554-2878	보라매	02) 820-2000	여의도	02) 3775-4270	중부	02) 2270-6500
종로영업소	02) 722-4388	도곡	02) 2057-0707	삼성역	02) 563-3770	동부이촌동영업소	02) 798-4805	창동	02) 995-0123
구로	02) 857-8600	양재동영업소	02) 3463-1842	삼풍	02) 3477-4567	연희동	02) 3142-6363	강북영업소	02) 906-0192
중앙유동단지영업소	02) 2101-3621	동대문	02) 2232-7100	남부터미널영업소	02) 522-7861	영등포	02) 2677-7711		
<b>인천·경기지역</b>									
계양	032) 553-2772	부천상동영업소	032) 323-9380	수원	031) 246-0606	의정부	031) 848-9100	평택	031) 657-9010
구월동	032) 464-0707	분당	031) 712-0109	안산	031) 485-4481	일산	031) 907-3100	평촌	031) 381-8686
동두천	031) 862-1851	PB분당영업소	031) 783-4100	아탑역	031) 622-1400	정자동	031) 715-8600		
부천	032) 327-1012	산본	031) 392-1141	연수	032) 819-0110	죽전	031) 898-0011		
<b>부산·경남지역</b>									
금정	051) 516-8222	마산	055) 297-2277	부산	051) 243-0707	서면	051) 818-0100	울산남	052) 257-0777
동래	051) 505-6400	밀양	055) 355-7707	PB부산영업소	051) 608-9500	울산	052) 273-8700	창원	055) 285-5500
<b>대구·경북지역</b>									
구미	054) 451-0707	대구동	053) 944-0707	시지	053) 793-8282	안동	054) 855-0606	포항	054) 252-0370
대구	053) 423-7700	대구서	053) 642-0606						
<b>대전·충북지역</b>									
대전둔산	042) 484-9090	유성	042) 823-8577	청주	043) 296-5600	청주지웰시티	043) 232-1088		
<b>광주·전라남북지역</b>									
광주	062) 232-0707	광양	061) 791-8020	전주	063) 286-9911	정읍	063) 531-0606	수완	062) 956-0707
군산	063) 442-9171	여수	061) 682-5262						
<b>강원지역</b>									
강릉	033) 642-1777			<b>제주지역</b>					
				서귀포	064) 732-3377	제주	064) 743-9011		
<b>PWM센터</b>									
도곡	02) 554-6556	서울파이낸스	02) 778-9600	압구정	02) 541-5566	태평로	02) 317-9100	Privilege서울	02) 6050-8100
반포	02) 3478-2400	스타	02) 875-1851	압구정중앙	02) 547-0202	해운대	051) 701-2200		
<b>PB센터</b>									
강남	02) 3011-5500	여의도	02) 6337-3300	분당	031) 783-1400	서초	02) 3482-1221	부산	051) 608-9500
<b>해외현지법인</b>									
뉴욕	(1-212) 397-4000	홍콩	852) 3713-5333	상해	(86-21) 6888-913516				

**투자등급 (2011년 7월 25일부터 적용) : 매수 : 15% 이상, Trading BUY ; 0~15%, 중립 : -15~0%, 축소 : -15% 이하**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사: 성준원, 공영규).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DR, CB, IPO 등) 발행과 관련하여 대표 주간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